

만성신부전과 간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간-신장 동시 이식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외과학교실*

정병하 · 박진아 · 최범순 · 양철우 · 김용수 · 문인성* · 김동구* · 고용복* · 방병기

생체간이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말기 신부전과 간부전이 동반된 환자들에게 있어서 간-신장 동시 이식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.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에서 2001년 3월 이후 3차례의 간-신장 동시이식을 시행하였기에 그 성적 및 임상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 이식건수를 고려할 때 전체 간이식환자의 1.8% (3/166명), 전체 신장이식환자의 0.2% (3/1430명) 이었다. 남자가 두 명, 여자가 한명이었다. 간부전의 원인은 B형 만성 간염 (2예) 및 C형 만성 간염 (1예) 이었다. 세 환자 모두 간세포암으로 전신적 항암치료, 혹은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기왕력이 있었다.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만성 사구체신염 (2예) 당뇨병성 신병증 (1예)였다. 수술 전 혈액 투석치료를 받은 환자가 2명이었다. 면역억제요법은 tacrolimus 또는 cyclosporine, mycophenolate mofetil, steroid를 투여하였다. 첫 간-신장 동시 이식의 수혜자는 51세 남자환자였다. 10년 전부터 B형 간염을 앓아오던 중 6년전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7차례의 간동맥 색전술과 3차례의 전신 항암치료를 받았고 3년 전부터는 신장기능 악화로 혈액투석을 받아왔다. 간 제공자는 환자의 이복 아들이고 신장 제공자는 부인으로 모두 비혈연적 제공자였다. HLA 항원검사에서 환자와 신장 제공자와는 6 antigen mismatch, 간 제공자와는 haplo-identical하였다. 이식초기에 tacrolimus 독성 소견을 일시 보였을 뿐 이후 더 이상의 신기능 악화는 없었다. 36개월이 지난 현재 혈청크레아티닌치 2.24 mg/dL로 비교적 안정된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간기능은 정상이다. 두 번째 환자는 62세 남자환자로 10년 전부터 C형 만성간염 및 당뇨를 앓아왔으며 수술 1년 전부터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고 수술 3개월 전에 간우엽에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1차례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다. 간 제공자는 환자의 사위였고, 신장 제공자는 아들이었으며 HLA 항원검사상 신장 제공자와는 haplo-identical type, 간 제공자와는 6 antigen mismatch였다. 수술 후 24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정상 신기능과 간기능을 유지하고 있다. 세 번째 환자는 53세 여자환자로 만성 신우염과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를 앓아왔으며 투석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. 간 및 신장 제공자는 비혈연관계였고 HLA 항원검사 상 신장 제공자와는 3 antigen mismatch 였고, 간 제공자와는 4 antigen mismatch 이었다. 특별한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신기능과 간기능이 회복되어 퇴원하였으며 13개월이 지난 현재 신기능과 간기능은 모두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. 요약하면 신장과 간장의 동시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식직후 외과적 합병증은 없었으며 추적관찰 중 거부반응은 없었고 신기능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. 따라서 간-신장 동시 이식은 만성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안정된 이식방법으로 생각되며 이식술의 발전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.